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1년 11월 29일(월) 총 2매	 환경특별시 인천			
담당 부서	수질 환경과	담당자	• 생활용수담당 윤혜용 ☎440-3631 • 담당자 용우은 ☎440-3632	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비상 시 ‘안심비상벨’ 누르세요..812개소 설치돼 있어
 - 인천시,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로 범죄 예방 강화 나서... 내년 74개소 추가 -
 - 2023년 7월 21일부터는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 의무화 -
 - 안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 다 할 것 -

인천시가 여성이나 아이 등 범위에 취약한 계층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‘안심비상벨’ 설치를 지속 추진한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‘안심비상벨’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
현재 안심비상벨 설치의 의무사항이 아니다. 그러나 인천시는 2014년부터 선제적으로 민원 발생 및 사고우려 지역의 공원, 민간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.

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(2021.7.20. 개정)에 따라 2023년 7월 21일부터 군·구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안심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.

인천지역에는 공공 및 민간시설을 합쳐서 총 2,425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, 약 34%인 812개소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. 이중 728개소는 공원, 시장 등 공공시설이다.

최근에는 음성 인식 기능을 탑재해 긴급한 상황에서 비명소리만으로도 자동으로 관할 경찰서와 연동되는 등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안심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다.

시는 2022년도에도 안심비상벨 설치를 위해 96백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74개소에 비상벨을 설치 할 계획이다. 필요 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지원 예산 1,070백만 원을 활용해 안심비상벨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군·구에 안심비상벨 예산지원을 강화하고, 향후 군·구 조례 개정 시 인천지방경찰청 및 자치경찰정책과 등과 협의해 안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